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53

“우리도 뛰다”

-광주시청

틈틈이 다진 체력
건전한 市政 밀착

회원 80명...청내 동호회 중 최다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신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업무추진을 위한 체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시청 마라톤 동호회’(회장 문정찬 체전기획담당)의 출사표는 유난히 눈길을 끈다.

회원이 모두 마라톤 마니아들이지만, 체력을 다지는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공무원으로서 봉사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광주시청 마라톤 동호회는 가장 규모가 크고 왕성한 활동을 자랑한다.

공식 회원 수만도 80명으로 시청의 40여개 동호회 가운데 인원이 가장 많다.

회원간 끈끈한 유대와 화합은 어느 단체들에 견주어도 밀리지 않은 광주시청 마라톤 동호회의 자부심

이다.

유망 선수들도 많다. 이용희(46·광산구청)를 비롯해 서계원(48·보건환경연구원), 한정호씨(48·마케팅팀) 등은 대표적인 건각들이다.

이들은 회원들의 체력관리, 훈련 등을 도맡는 등 마라톤 클럽을 이끌고 있는 주역이다.

특히 이용희씨는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의 꿈인 ‘서브쓰리’(SUB3·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내에 완주하는 것) 회원이며, 한정호씨는 풀코스 완주만 해도 1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체력과 스피드를 겸비한 선수. 한씨의 하프코스 출전 횟수는 무려 40차례.

강한 결속력...봉사정신도 ‘쑥쑥’

서계원씨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 풀코스 에 도전하는 등 국내외의 마라톤 대회에서 단골손님으로 꼽힐 정도로 마니아다.

이들은 모두 이번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킬 광주시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는 ‘광주시청 마라톤 동호회’가 7일 시청 입구에서 선전을 다짐하며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청 마라톤 동호회의 대표선수들이다.

이번 대회에 출전할 회원 가운데 주목받는 선수는 임우진 행정부시장. 임 부시장은 이번 대회 5km 코스에 도전한다. 임 부시장은 광주시청 마라톤 동호회의 출범을 이끌어낸 산파역이다.

한 동안 마라톤을 쉬었던 임 부시장은 “업무 때문에 땀 흘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대회 출전을 계기로 다

임우진 행정부시장 5km 도전

시 마라톤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청 마라톤 동호회는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서 명실상부한 마라톤 클럽으로 도약하기 위해 무등산 청풍쉼터~토끼등 일원에서 틈틈이 몸을 단

결하고 있다.

문정찬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체계적인 훈련 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신입회원들을 늘려 동호회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며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 명실상부한 마라톤클럽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골프지존’ 신지애
세계 랭킹 7위

작년보다 한계단 올라

‘골프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세계 랭킹을 7위까지 끌어올렸다.

6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따르면 신지애는 올해 처음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지난해 8위에서 7위로 한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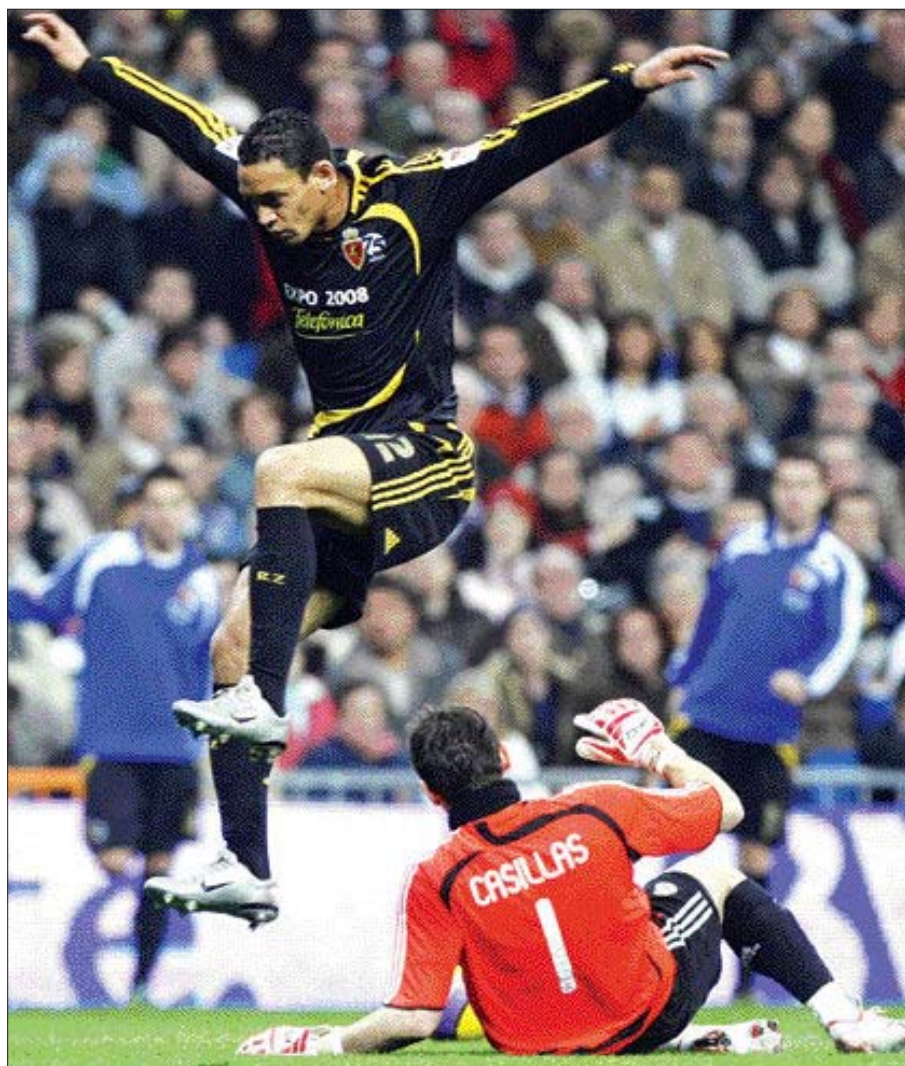
신지애는 지난해 KLPGA투어에서 50%의 스텝을 기록하며 시즌 9승을 올린 것이

랭킹 포인트를 올린 요인이 됐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시즌 8승과 상금랭킹 1위를 차지했던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부동의 1위를 지켰고, 시즌 5승을 올린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2위, 캐리 웹(호주)이 3위, 에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4위를 기록했다.

신지애 외에 한국선수 가운데 김미현(31)이 9위, 박세리(31)가 10위, 장정(28)이 11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그라운드 매트릭스’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열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레알 사라고사의 경기 중 이케르 카시야스(마드리드·오른쪽)가 히카르두 올리베이라(사라고사)의 슈트를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스페인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올림픽대표팀 박성화 감독과 코치, 선수들이 7일 오전 피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를 떠나기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화호 스페인 전훈 출발

사상 첫 올림픽축구 메달권 진입을 목표로 발진한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3주간의 스페인 전지훈련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박성화(53) 감독이 이끄는 25명의 올림픽호 태극전사들은 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첫 훈련지인 스페인 라망가로 출국했다.

전날 저녁 늦게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한 올림픽대표팀은 이날 오전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따뜻한 격려를 받았다.

대표팀의 첫 훈련지는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초석이 됐던 스페인 라망가다.

라망가에서 17일까지 1차 전지훈련을 치르는 대표팀은 이후 마벨라로 옮겨 마무리 훈련과 더불어 본격적인 평가전을 치르면서 훈련의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골결정력과 수비조직력 완성’을 전지훈련의 목표로 삼은 박성화 감독은 새롭게 올림픽호에 이름을 올린 새내기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최종예선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박 감독은 최종예선 이후 휴식기를 통해 구상해온 2~3개의 변형전술을 시험하면서 올림픽대표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골결정력과 수비조직력 안정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박성화 감독은 “최종예선에서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며 “특정 루트를 다양화하고 협력수비와 최종 수비진의 밸런스 문제도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120위 초프라 우승...최경주 이븐과 28위

PGA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 최종

세계랭킹 120위에 불과한 다니엘 초프라(스웨덴)가 정장한 강호들을 꺾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08년 개막전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초프라는 7일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의 카팔루아리조트 플랜테이션 코스(파73·7천411야드)에서 열린 메르세데스-벤츠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7언더파 66타를 쳤지만 9타를 줄인 스티브 스트리커(미국)와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74타로 승부를 가리지 못해 연장전을 치른 끝에 정상에 올랐다.

작년 투어 대회 우승자만 출전할 수 있는 ‘왕중왕전’에서 무명예 가까운 초프라의 우승은 올해 PGA 투어가 심상치 않은 판도 변화를 예고한 사건.

스웨덴인 어머니와 인도인 아버지 사이에 스웨덴에서 태어나 7살 때부터 인도에서 자란 초프라는 아시아투어와 유럽투어를 거쳐 2004년부터 PGA 투어에 입성했으나 지난해 긴슈메르클레식에서 우승하기 전에는

그저 그런 선수에 불과했다.

더구나 긴슈메르클레식도 PGA 투어에 도입된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한 중하위권 선수들이 주로 출전한 B급 대회였다.

그러나 초프라는 1~3라운드 내내 선두권을 지킨 데 이어 공동3위로 나선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만 7개를 골라내는 빼어난 플레이를 펼쳤다.

최경주(38·나이크골프)는 이를 연속 4언더파 69타를 치며 월드랭킹 9위의 위신을 되찾았다. 3라운드에서 퍼팅 감각을 회복한 최경주는 4라운드에서도 버디 5개를 잡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냈다.

아이언샷 그린 적중률이 무려 83%에 이르렀고 첫날과 둘째날 부진의 원인이었던 퍼팅도 홀당 1.667개로 향상돼 불같은 상승세를 탔던 작년 하반기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이를 연속 언더파 행진을 벌이고 도 최경주는 1, 2라운드에서 잃어버린 타수 탓에 순위는 끝에서 세번째인 공동28위(이븐과 292타)에 그쳤다.

최경주는 11일부터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소니오픈에 출격, 명예회복에 나선다.

“한국 올림픽 9위 무난”

올림픽뉴스 웹사이트 전망

한국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2회 연속 ‘톱 10’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금메달 8개를 획득해 무난히 10위 이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림픽뉴스 전문웹사이트인 ‘어라운드 더 링스(Around the Rings)’는 이탈리아 출신 국제경기력 분석가인 루치아노 바라의 2008년 베이징올림픽 국가별 종목별 예상 메달 전망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했다.

이탈리아올림픽위원회(CONI) 경기국장과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사무총장을 지낸 바라는 한국이 양궁과 태권도, 수영, 역도, 유도 등에서 금 8, 은 7, 동메달 10개 등을 획득해 종합 9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종목별로는 먼저 양궁에 걸린 금메달 4개 중 3개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이한 점은 한국이 올림픽 6연패를 이룩한 여자개개인전에서는 이탈리아 선수가 우승할 것으로 내다봤고 오히려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던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딸 것으로 전망했다.

월드컵 예선선 요르단전

5월31일 서울서 개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요르단과 홈 경기가 6월2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 치러질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는 “6월2일 예정됐던 요르단과 3차전 홈경기를 5월31일 치르기로 요르단 축구협회와 합의했다. 일정 변경을 놓고 현재 프로축구연맹과 협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6월2일 경기를 할 경우 바로 닷새 뒤인 6월7일 요르단과 4차전 원정경기를 치러야 돼 일정이 빠듯하다”고 3차전 개

최일 변경 이유를 전했다. 6월2일이 월요일이라 중계권과 관중 동원 등 사업적인 측면도 고려됐다.

하지만 5월28일 프로축구 컵대회가 예정돼 있어 K-리그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리 회원권
골프 선수 3,450명, 총 금액 1,700
남자 4,400명, 총 금액 1,900
승 8,200명, 총 금액 2,100
상담 전화 (062)351-0095